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5~7/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행복은달처럼우리곁에있네	월호스님	(주)조계종출판사	6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없다	수신오도	사유수
2	신심명(몰록깨달음의노래)	혜국스님	모과나무	7	스승과제자,함께걷다	성재헌	(주)조계종출판사
3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8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4	무아윤회문제의연구	호진	불광출판사	9	불자로산다는것	도일	불광출판사
5	행복 뇌 접속	릭핸슨/김미옥	담앤북스	10	좋은사람으로사는법	틱낫한	김영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당신의 마음은 온전히 잘 있습니까?"

기별

우현 스님 지음
맑은소리맑은나라 펴냄
1만 2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수행의 무게를 잔뜩 짊어진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가 물었다.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야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스승은 짧게 '내려 놓아라' 하였다."

깊고 넓은 법계에서 공존하는 자연과 부처님을 바라보며, 관룡사 주지 우현 스님〈사진〉은 순간순간을 사진으로 담아냈고 여기에 선어를 보탰다.

통도사 교무국장 시절, 사보에 시와 사진을 연재한 우현 스님은 관룡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사찰의 풍경을 담은 사진과 시어를 엮어 차별화된 카렌다를 제작하는 등 2008년부터 지금껏 찰나를 기록해 왔다. 이 책 〈기별〉은 이를 엮은 시선집으로 스님은 아름다운 세상의 순간들을 낱낱이 담아 독자들에게 한 소식, 기별을 보낸다. 총 76개의 주제로 담겨진 〈기별〉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부처님 가르침을 정제된 언어와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다.

2008년부터 '찰나'를 기록화
총 76개 주제의 글과 사진 수록
정제된 언어 울림으로 다가와

"꽃 하늘의 눈물을 머금다. 눈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꽃은 그냥 그대로 후드득 지상으로 떨어진다."(연꽃중에서)

빗물의 무게를 견디는 연꽃을 보고 저자는 구도의 과정서 올라온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채 혼자 져버리는 안타까운 수행자의 모습을 빗댔다.

자신도 모르게 짊어진 짐을 버티고 떨쳐버리는 사람이라야만 하늘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보살의 화현으로 세상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책 속에는 수행자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불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꿈이라면'도 읽는 이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준다.

"찰나의 봄날에서 영원을 꿈꾸는 것이 중생의 안목이라면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의 법칙을 읽어내는 것은 부처의 안목이겠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한낮 순간의 꿈이었음을 알아차리는 날, 중생과 부처의 차별없는 영원한 니르바나에 노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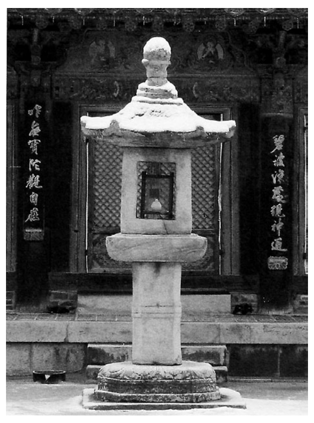
이렇듯 간략하면서도 울림있는 스님의 일상 속 글귀와 사진은 불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자연속에서 수행자로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자는 구도자의 길을 이렇게 이 책에서 표현했다.

"많은 붓다께서 길 위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사유하고 이야기하였다. 하여 가을 초입이 어느날 산들바람과 하늬구름과 두발로 걸었다."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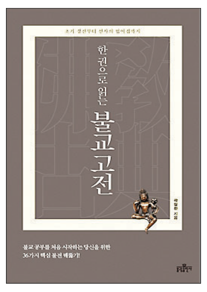
스님의 시는 운문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선어 같다. 읽고 난 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끝맛이 명징하다. 특히 '영원한 찰나'는 더욱 그렇다.

"아쉬운 마음에 여즉 가을을 보내지 못했건만 첫 눈이 내렸습니다. 반가운 마음 감추지 못해 그대를 붙잡아 두려 하지만 그대 어느새 찰나가 되었구려. 그러나 걱정마시오. 내 마음엔 그 모습 영원이 되었으니…."(영원한 찰나)

불법의 길에서 자연과 함께 걷고 있는 스님의 일상을 따라가다보면, 어느덧 따뜻한 '성정의 부처'를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님이 안내하는 구도의 길에서 '행복'으로 자신의 마음에 기별을 넣어보자. "당신의 마음은 온전히 환하게 잘 있습니까"라고.



삶과 죽음의 오래된 사유… 經典〈경전〉은 최고 古典〈고전〉



한 권으로 읽는 불교고전

곽철환 지음
불광 펴냄
1만 6천원

대장경(大藏經)이란 불교의 모든 경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는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장(經藏), 승가의 계율 및 그것에 대한 해설서인 율장(律藏), 경장에 대한 연구 및 해석을 집대성한 논장(論藏)을 비롯해 역대 조사와 고승들의 저서와 문헌까지 포함된다.

이것을 새긴 목판의 수가 8만4천여 개에 이른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듯, 대장경은 실로 그 양이 방대하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었음을 뜻하며, 곧 텍스트로 불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 이러한 취사선택의 유리함이 처음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수많은 경전 가운데 어느 것부터 읽어나가야 할지, 어떤 경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 수 없어 섣불리 책을 고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처음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전 읽기 안내서이다. 대장경 속 수천 가지 경전들 중 가장 널리 읽히는 36가지를 가려 뽑아 그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경전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을 통해 개별 경전의 내용은 물론, 대장경 전체를 관통하는 불교 사상의 요체를 꿰뚫어 볼 수 있다.

분야를 막론하고 입문서는 우선 읽기 쉬워야 한다. 그러면서 해당 분야의 골자를 온전히 전해야 한다. 이 책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이 책은 대대로 불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36가지 경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발췌해 소개함으로써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경전 읽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다. 더불어 원문 자체가 난해해 그 의미를 온전히 헤아리기 어렵거나, 좀 더 깊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가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그 뜻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불교 입문서로서 이 책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교학과 수행에 있어 사뭇 차이를 보이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경전을 장 별로 묶어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로 대변되는 두 가지 불교 전통을 대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는 아함부와 니카야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아 상대적으로 초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기불교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이 외에도 불교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주요 논서와 수행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고승들의 법어집을 통해 불교 이론이 어떻게 실제 수행으로 이어지고, 삶에 어떠한 변화들을 끌어낼 수 있는지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 역시 이 책이 갖는 특별함 중 하나이다.

불교의 사상과 이론에 지적 호기심을 느껴 막 불교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그것의 배경지식이 되는 부처님 가르침을 개괄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유용한 입문서이다.

초기 경전과 대승 경전의 모든 것
한눈에 쉽게 읽는 불교 입문서

남·북방 불교전통 대비해 설명
초기불교 교리와 수행체계도 조망

선집(選集)의 유용함은 다량의 정보를 압축적으로, 단시간에 획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로써 깊이 있는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한 권으로 읽는 불교 고전〉의 기획 취지 역시 여기에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장경 속 핵심 경전의 내용과 불교 전체를 가로지르는 사상의 근간을 배우고,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수준의 불교 공부를 위한 토대를 닦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책머리에 불교 공부법에 관한 짧은 조언을 남겼다.

"불교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앎'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자는 약이 아니라 처방전일 수밖에 없으니까. 불전을 읽다가 자신에게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가르침을 정리하여 반복해서 되새기고, 여러 수행 가운데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하나를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 불교 학습의 요점이다."

저자의 말을 빌리면, 이 책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종합처방전이다.

독자는 잘 정리된 이 처방전을 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공부법 혹은 수행이 무엇인지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 여기에는 이거다 할 유일한 정답이 없고 반드시 따라야 할 순서도 없다. 어떤 사람에겐 초기 경전의 말씀이 와 닿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대승 경전, 혹은 논서나 법어집에서 번뜩이는 무언가를 발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택하든 꾸준히 학습하고 실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저자가 밝히듯 불교 학습의 요점은 지속적인 실천에 있기 때문이다.

고전(古典)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작품'이다. 다시 말해 그것이 처음 기록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시간과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 폭넓게 읽히는 책을 말한다.

이러한 책들 속에는 시간이 흘러도 풀리지 않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 있다.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예컨대 삶과 죽음에 관한 물음 같은 것들 말이다. 끊임없이 새것에 열광하는 요즘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고전만큼은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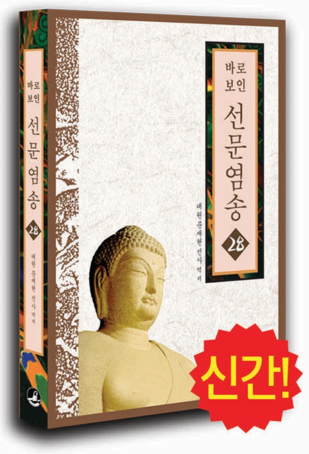
이 책에 '고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러한 고전의 의미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불교 경전은 출가수행자나 재가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보는 종교 서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종교를 떠나 바라보면 '존재와 본질' '삶과 죽음'에 관한 오래된 사유의 기록인 불교 경전은 인간이 갖는 근원적 물음을 가장 첨예하게 탐구한 텍스트이자, 전(前) 인류가 남긴 최고의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수 천 권의 경전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은 대동소이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모두의 내면에 자리한 공통의 물음이고, 그에 대한 답변이다.

다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경전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을 주제로 삼아 쓰인 전집이다. 그리고 〈한 권으로 읽는 불교 고전〉은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간추린 고전 도서 목록이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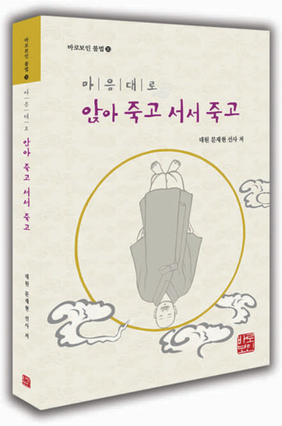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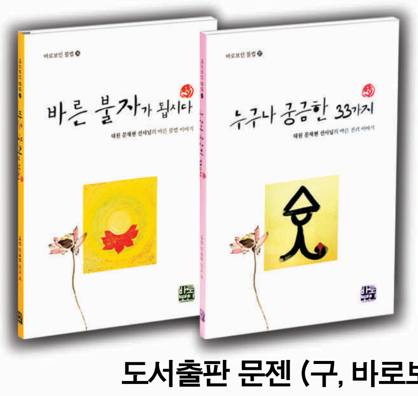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신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들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1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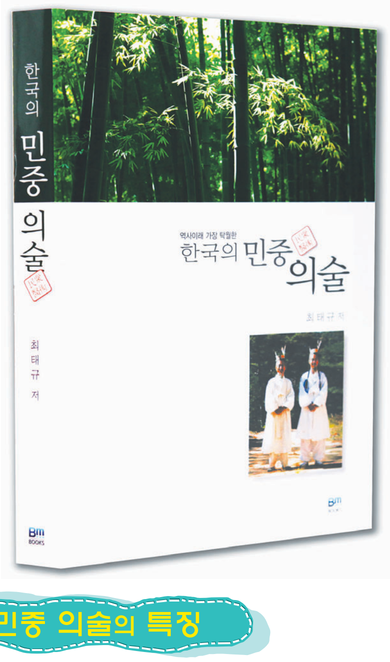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법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않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가격 14,000원 (배송비 별도)
구입 054)734-1767 www.msjy.co.kr

민중 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관에 보충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